

# 기장과 대통령



김승호의  
시선

현직에 있는 기장 K씨께서 기사가 11월 28일 새벽 6시27분에 출고한 [‘수십미터 가는데 5시간 30분’...인천공항공사의 ‘민낯’]이란 기사를 자신의 SNS에 직접 언급 해주셨다. 감사하다.

이 기사는 지난 11월 말 폭설때 기자가 베트남 하노이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5시간 30분 동안 기내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객실 사무장·승무원과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기사를 포함해 해당 비행기에 탔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착륙 후 계류장이 멀리 보이지 않는 활주로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후에야 내릴 수 있었다.

승객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채 간혀 있어야했다. 기내 방송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내용만 무한 반복했다. 승무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본인들도 들은 바가 없어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기장은 4시간 만에 방송에

나타났다. 하지만 기장도 “기다려달라”는 말이 전부였다.

대기가 서너시간을 넘기면서 한 승객은 공항장에 때문에 승무원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다. 이곳 저곳에서 기침소리가 많아졌다. 숨쉬기가 답답하다는 호소도 곳곳에서 들렸다. 기내 불빛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참다못한 몇몇 승객은 휴대폰으로 112, 119 등으로 신고를 했다. 화가 난 일부 승객은 욕설을 하기도 했다. 특별히 욕할 대상이 있다기보다 화나서 뱀은 말들이었다. 5시간을 넘는 시간동안 승객들을 위한 버스 등 대체 운송 수단은 언급생생이었다.

내 기사에 대해 K 기장께선 “항공사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시면 어쩌지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다. 그러면 절대 안된다.

그 기장께선 또 “기내의 전기와 냉난방은 엔진과 APU(보조동력장치)를 통해 공급된다”며 산소 공급 부족으로 적지 않은 승객이 기침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기사에 대해 반박도 했다. 그러면서 “소설을 쓰지 말라, 말이 되는 기사를 쓰라”고도 했다. 기사가 5시간 반 만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사를 쓴 이유는 긴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혀 주지 못한 승무원과 항공사의 부실한 대응을 꼬집기 위해서다. 지친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집을 찾고 공항을 떠나기전까지 국내 1위 대한항공이 한 일은 없었다.

화제를 돌려 나라안 상황으로 가보자. 국가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 내 나라 대한민국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국회 탄핵 가결후 밝힌 담화에서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시대가 수십년전으로 회기하고 온통 불만에 떨고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소리다. 국민이 믿을 사람은 지도자 밖에 없다. 비행기에 탄 승객들은 기장에게 목숨을 맡겨야한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그 기장이 국민, 승객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다들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신들만 ‘맞다’고 한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이들을 통해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bada@metroseoul.co.kr

# 영원한 왕조는 없다



기지수첩  
양성운  
(산업부)

‘영원한 왕조는 없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를 제외하고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기아를 보고 있으면 저물지 않는 태양을 연상케한다. 특히 전동화 시대와 고성능 자동차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취임 이후 세계 시장 판매량 3위라는 업적을 달성한 뒤 현대차·기아는 세계 주요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기 위함이다.

조그만 팥 덩어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길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한 건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제품 기술력도 한단계 성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하다보면 안방을 내어줄 수 있다.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 BYD가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BYD는 중국 본토 최대 딜러사인 하모니오트 그룹과 손잡고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BYD는 이미 유럽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중국 내수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BYD는 현대차·기아의 안방인 한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BYD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에 대한 선

입견이 없는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계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스파트너스(어피너티)가 국내 렌터카 시장을 장악한 것도 BYD의 한국 진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전기차 업체는 국내 지방 렌터카 업체와 협업을 통해 무료 시승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국내·중국 소형 전기차를 1박 2일간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만약 BYD가 렌터카 업체를 통한 고객 경험을 쌓아간다면 국내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 현대차·기아는 중국차에 안방을 내준 브랜드라는 글로벌 시각이 생겨날 수 있다. 결국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중국 제품은 값싸고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옛말이다.

/ysw@

## 오늘의 운세

12월 16일 (음 11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기대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48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서글프다. 60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노력에 대한 보답. 72년생 게으르고 미루다보니 언젠가 남에게 뒤처지게 된다. 84년생 격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다친다.



37년생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이기적으로 된다. 49년생 여름이 가면 부채는 역할을 다한 것. 61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 발생. 73년생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이가 빠질듯 시련. 85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곧 봄이 온다.



38년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50년생 먼 여행을 삼가고 낯선 사람과 여행을 조심. 62년생 진인사대천명이나 최선을 다해 마무리. 74년생 하찮은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고 부지런히 행동. 86년생 원점에서 시작하는 마음.



39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 51년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63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면 열 번 생각하고 행동. 75년생 지출을 해야 변화가 온다. 87년생 평소 모아둔 비상금을 활용해서 일을 처리.



40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나 자신감을 가지자. 52년생 마른논에 물 들어오듯이 일이 해결. 64년생 밤을 견뎌야 찬란한 새벽을 본다. 76년생 이리저리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다. 8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젊은 날이니 마음껏 즐겨라.



41년생 끈끈한 포기가 일을 더 빠르게 진행 시킨다. 53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있으니 마음을 굳게 먹어라. 65년생 바람이 불어다녀야 상황이 시작. 77년생 실패에 대한 걱정 보다는 일단 시작해야. 89년생 사탄적 자량에 입이 침이 마른다.



42년생 실력 있는 상사의 도움으로 성과가 높다. 54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관망. 66년생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78년생 못하면 내일로 미루게 하는 마음을 접자. 90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43년생 앞에 나서게 되니 바쁘다. 55년생 병도 약도 내 탓임을 잊지 말자. 67년생 내가 편안해야 자식이 편하다. 79년생 금전 문제는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다. 91년생 자식에게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함을 가르쳐라.



44년생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에 속는다. 56년생 미래를 위해 투자는 하지 말아야. 68년생 발전이 느리지만, 현상 유지가 최선. 80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 된다. 9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편하게.



45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하다. 57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해준다. 69년생 누군기를 들고 싶다면 실력을 키워야 할 듯. 81년생 기쁜 소식 이오니 고민이 일시에 해결. 93년생 보이시피싱과 피싱 투자에 주의.



46년생 금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58년생 밀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 않은지. 70년생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82년생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 한순간이나 나타하지 않도록. 94년생 심신이 고단하니 재물은 들어온다.



47년생 삼재기도를 해보는 것도 새 출발에 도움이 될 듯. 59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하라. 71년생 나이 들면 입은 무거워져야 한다. 83년생 나의 게임을 반성해보고 오늘을 시작. 95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 김상회의四季

## 오복과 인생(1)

오복(五福)을 인간 행복의 우선이라고 보았다. 오복이 무엇인가? 수(壽)·부(富)·귀(貴)·강녕(康寧)·자손중다(子孫衆多), 이 다섯 가지를 말한다. 수명만 길어서도 안 되고 많은 재물과 명예, 건강과 자손 또한 많이 낳고 흥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쉽지 인생을 살다보면 이 다섯 가지를 고루 갖췄다는 것은 천복이 아니면서 어려운 것임을 실감한다. 재물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허사요, 몸이 건강해도 재물이 박하면 삶이 구차하고 사람 노릇을 못 할 적이 많다. 귀함이 부족하면 때로는 간과 쓸개까지 내려놓고 치욕을 겪기도 한다. 그래서 명예를 얻고자 그리 애쓰는 것이다. 자손이 창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재와 명예가 있다 한들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은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조건 없이 숭상하는 유교 사회에 있어 자손의 흥성은 비록 나는 죽어 흙이 된다 해도 나의 존재 영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자손들이기 때문이다. 재와 명예가 높다 한들 자손이 없으면 이보다 불쌍한 일이 없다. 왕가라 할지라도 오복은 쉽지 않다. 단명한 왕들이 대부분임이 이를 증명한다. 명은 대부분 건강과도 연결된 것이어서 왕가의 사람 중 건강과 수명을 오롯이 즐긴 숫자는 삼분의 일도 안 될 것이다. 그러니 결혼 예단 중 각시 쪽에서 준비하는 이불이나 수저 예단에 목수(壽)와 복(福) 글자를 새겨 넣어 장수와 건강을 염원했다. 또한, 새로 집을 지을 때 상량(上梁)을 하면서 대들보에 연월일시를 쓰면서 그 밑에 “하늘의 세 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추다(應天上之三光備人間之五福)”라고 쓰는 것이 전통적 관례가 된 것이다. 사주 여덟 글자에 그 사람의 수명 건강 재물 자손의 흥성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5	8	4	1		
3		1		5	9
4				3	8
			3	4	
		2	8		
	6	7			
9	6	3			1
8	1	5		9	4
	7	9	8		5

7	5	1	6	3		4
		4	5	6		
	9	4				
4		2		3		
		8		1		
	5		6		9	
				4	7	
1		3	4			
8		5	9	7	3	6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7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7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